
		<h1 style="margin: 0;">국제화 프로그램 참가</h1> <h2 style="margin: 0;">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h2>				
인적사항	이름			학번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연락처			E-MAIL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독일		파견 학교명	바이로이트대학	
	파견 시기	학년도 [2]학기		파견 기간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Filmgeschichte		고전 영화의 역사		
		Deutsch als Fremdsprache Kompaktkurs(B2.1)		독일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Deutsch als Fremdsprache Hören-Verstehen-Sprechen(B2.1)		독일어의 듣기, 말하기 중심		
		Deutsch als Fremdsprache Lesen-Verstehen-Sprechen(B2.1)		독일어의 읽기, 말하기 중심		
		Geschichte und Ästhetik der audiovisuellen und digitalen Medien II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게임의 역사와 미학		
		Deutsch als Fremdsprache Ausdrucksfähigkeit(B2.1)		독일어 표현력		
		Filmgeschichte		현대 영화의 역사		
Deutsch als Fremdsprache Kompaktkurs(B2.2)		독일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Geschichte der Oper und des Musiktheaters II		오페라와 음악극의 역사				
체험수기	<p>I. 파견대학</p> <p>1. 파견 대학 소개</p> <p>- 독일 바이에른 주 바이로이트에 위치한 바이로이트 대학교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1975년 정식 개교한 비교적 젊은 종합 연구중심대학이다.</p> <p>The Young University 행킹(설립 50년 이하 대학)에서는 독일 내 2위, 전 세계 3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 자연,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 교류가 활성화된 캠퍼스 중심 대학이고 UNIKAT 등 캠퍼스 축제 운영, 여름 정원 축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p> <p>학부 및 석박사 과정 모두 독일어 및 영어로 제공되며 학기 등록비와 교통비용으로 약 150-200유로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p> <p>2. 파견 전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학기 독일 파견 교환학생 참가자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2024.04.01~19) - 합격자 공지 확인 - 바이로이트대학으로부터 교환학생 선발 확정 이메일과 지원 링크 전달받음 (2024.04.22.) - 합격자 교육(2024.04.24) - 서류 준비 및 제출(2024.05.01) - 바이로이트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 - 입학허가서 전달받음 및 기숙사 신청(2024.06.18) - 기숙사에 대한 계약서 전달받음(2024.07.19) - 익스파트리오 신청(2024.08.19) - 독일 도착 및 안멜동 신청(2024.09.11.) - 비자 신청(2024.09.14.) - 비자 날짜 확정(2024.09.16.) - 안멜동 (2024.09.24) - 독일 계좌 개설(2024.10.04.) 					

- 비자 면접(2024. 10. 18.)
- 슈페어콘도 활성화 (2024. 10. 24.)
- 비자수령 (2024. 11. 24.)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 학기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독일학교로부터 CM life(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는 아이디(ex: bt726584)를 얻을 수 있다. 받은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홈에서 보이는 kurs(courses)를 누르게 되면 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들을 볼 수 있다. 원하는 수업을 찾은 뒤 수강신청 시간에 맞춰 들어가게 되면 Anmelden(Register)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 글씨를 누르게 되면 수강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업 시간과 강의실 위치는 강의정보에 나와 있다.

수강신청기간은 수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미리 찾아놓는 것을 추천한다.

- 기숙사는 입학증명서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기숙사 배정은 선착순이기에 받자마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에서 보내준 기숙사링크 또는 국제협력팀 담당자 분이 보내주신 기숙사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에 원하는 기숙사나 정보 등을 기입하고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no-reply로 메일이 하나 온다. 첫 번째 링크인 revise application은 정보 수정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링크인 send confirmation을 클릭하여 확인을 눌러야 완료가 된다. 이후 독일에 도착해서 기숙사를 갈 때 기숙사관리인 이 이하는 시간인 8-9시 안으로 가야 기숙사 키를 받을 수 있으며 Mietvertrag(contract)와 Bewerbungsbogen(Application)을 기숙사 관리인한테 제출해야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강신청

1. 학교로부터 받은 아이디 통해 로그인
2. 홈에서 보이는 Kurs(courses)를 클릭
3. 원하는 수업 선택 후 수강신청 기간 확인
4. 수강신청 기간에 Anmelden(Register)을 눌러 수강신청완료

*기숙사 신청 및 키 수령

1. 입학 증명서 받은 후 기숙사 신청
2. no-reply로 온 두 번째 메일에서 확인 클릭 후 신청완료
3. 독일 도착 후 오전 8-9시에 기숙사관리인을 만나 지참한 서류 제출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 김서연, 교환학생 담당, 이메일 sykim21@chosun.ac.kr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 첨부파일 확인바람

2. 외국어 습득 정도

- 원래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일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교환학생 파견 전에는 독일어 수준이 B1 초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간단한 토론과 의사소통만이 가능했었지만 파견 기간 동안 현지 대학에서 독일어 수업(B2 수준)을 매주 수강하였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독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독일어 컴팩트 수업에서의 친구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자기 의견 표현 능력과 청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일상적인 상황(예: 행정처리과정, 소몰토크 등)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며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도 익숙해졌습니다.

3. 학습 방법

- 학교 수업: 대학에서 제공하는 독일어 강의에 참여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등 여러 영역들을 고르게 확장 시켰습니다.

- 어휘 학습: 독일 뉴스를 보며 모르는 단어와 표현법을 익히고 반복 암기 하였습니다.

- 청취 훈련: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독일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청해 능력을 훈련하였습니다.

- 회화 실습: 수업에서 친해진 친구와 주기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며 독일어로 대화를 하여 회화 실력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 대부분의 물품이 독일에서 팔고 있기에 많은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꼭 필요한 물품을 고르자면

1. 전기장판

- 독일의 겨울이 생각보다 춥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유용하진 않아서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전기장판이 필요합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전기장판을 팔지만 한국 것처럼 따뜻하진 않습니다.

2. 수영복

- 남성분들은 괜찮으나 여성분들의 수영복을 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독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수영복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한국 음식(소스, 가루)-고추장, 쌈장, 된장 제외

- 마트에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사려고하면 항상 부담스러운 가격이여서 포기하게 되고 한국의 모든 재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스 또는 가루들을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의료: 이플 경우, 주변에 여러 병원이 있으니 보험증과 함께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라면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말하면 구급차가 옵니다.

- 은행: 저는 실물은행인 슈파카세 은행과 인터넷 뱅킹인 와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슈파카세는 학생에게는 계좌 유지비를 무료로 제공해주면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와이즈는 계좌개설 절차가 많지 않기에 빠르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교통: 달 에 58유로 티켓(학생할인 받으면 25.33유로)으로 독일 전역을 지역열차를 통해 다닐 수 있다. 거리가 멀다면 Flixbus 나 한국의 KTX와 비슷한 IC, ICE를 미리 구매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통신: 보더폰 사이트에서 실물 유심이 아닌 E심으로 구매했다. 가격은 15유로에 30유로이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 학교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많은 이벤트들을 한다. 예를 들면 바이로이트에 있는 펌들을 전체적으로 도는 프로그램, 빠르게 많은 친구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피드 프렌딩 프로그램이 있다.

- 시간이 많은 여름날에는 주로 공원에 돛자리를 펴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고 피크닉을 했었다. 또한 주변에 소도시들을 방문했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월별 고정지출

화폐단위: EUR(유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기숙사 보증금(-)	350					
슈페어콘토 지급(+)	992	992	992	992	992	992
월세(-)	288	288	288	288	288	288
공보험비(-)	126.71	126.71	126.71	126.71	126.71	126.71
라디오세(-)	-	-	-	-	-	128.52
교통비(-)	16.33	16.33	16.33	16.33	25.33	25.33
학교 등록비(-)	148.04	-	-	-	163.04	-
통신비(-)	15	15	15	15	15	15
헬스장 등록비(-)	-	-	40	16	1	1
학교 스포츠 등록비(-)	-	30	-	-	-	-
식비(-)	150	150	150	150	150	150
여가 생활비(-)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242.08	265.96	255.96	281.96	122.92	157.4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예정)
슈페어콘토 지급(+)	992	992	992	992	992	992
월세(-)	288	288	288	288	288	288
공보험비(-)	139,11	139,11	139,11	139,11	139,11	139,11
라디오세(-)	-	55,08	-	-	-	-
교통비(-)	25,33	25,33	25,33	25,33	25,33	25,33
학교 등록비(-)	-	-	-	-	-	-

통신비(-)	15	15	15	15	15	15
헬스장 등록비(-)	1	1	24.9	39.9	24.9	24.9
학교 스포츠 등록(-)	-	-	-	-	-	-
식비(-)	150	150	150	150	150	150
여가 생활비 (-)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273.56	218.48	249.66	234.66	249.66	249.66

*2025년 9월 1일부터 기숙사 비용 273유로로 인하여 예정.

***항공료**

인천국제공항->프랑크푸르트공항(경유)->뉘른베르크공항

1,455,700원

프랑크푸르트공항->인천국제공항

1,092,740원

합계: -2,548,440원

***여행비용**

프랑스 파리(3박 4일) 숙소, 교통, 식비 포함 약 200-300유로

벨기에 브뤼셀(3박 4일) 숙소, 교통, 식비 포함 약 150-250유로

북유럽 투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14박 15일) 모든 경비 포함 약 1250 유로

동유럽 투어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14박 15일) 모든 경비 포함 약 1000 유로

영국 런던(3박 4일) 모든 경비 포함 약 200유로

이탈리아 피사, 피렌체, 밀라노(4박 5일) 모든 경비 포함 약 500 유로

합계: -3400 유로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 내 삶에서 나 자신이 가장 성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외에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지닌 생각, 가치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좁은 시선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직업 계획이나 삶의 계획하는 부분에서도 확장 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립심과 생활력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돈이 한정적이고 독일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돈을 어디에 쓸지, 가장 효과적인 소비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소비했었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많은 고민들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익숙한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나 자신이 바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않고 익숙한 것만 찾아 지식을 확장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

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한 친구의 조언으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이후 완전한 겁을 없애진 못했지만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얻는 것이 크기에 도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또는 강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며 한 독일인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하며 나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 친구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던 도중 친구가 나에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먹지 않는다, 집이 크지 않다 에서 왜 집이 크지 않는다 는 왜 안 되는 거야?” 이 순간 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답만 알고 이유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는 왜 몰랐을까’ 이것이 제가 이 진로를 계획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언어교환을 하기 전 저는 이유를 찾아서 다음 언어 교환 시간에 친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 진로를 계획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학교와 지인 ,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조언과 방법을 듣고 결정하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세종학당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종학당은 한국 또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에 제가 원하는 ‘한국어를 가르침’ 또한 충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교환학생에 대한 목적과 함께 오면 더 쉽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적은 독일이 나의 성향과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어학연수 2개월, 중기로 교환학생 1년을 통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3년 이상은 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참가자분들도 가볍게는 여행이라는 목적부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미래까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브리타라는 물 정화를 해서 마실 수 있는 기계를 사면 편하기에 물을 일일이 사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 1인실은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없습니다.

- 비어칸 기숙사는 방에 조명이 밝지 않기에 밤에는 방이 다른 기숙사에 비해 어둡습니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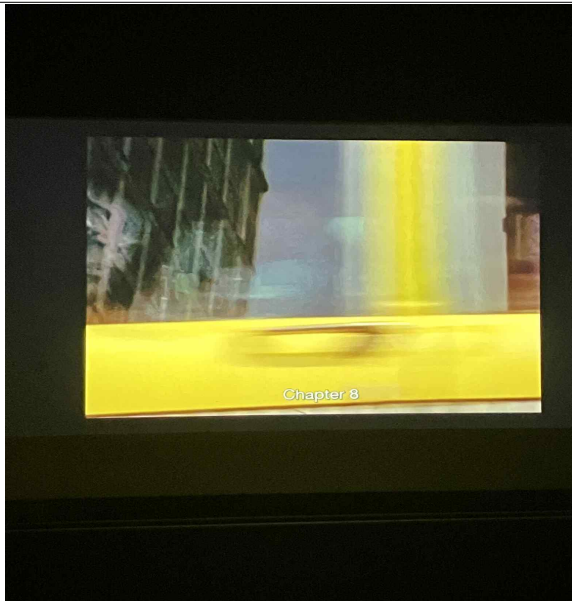


사진1. 영화 수업에서 영화를 보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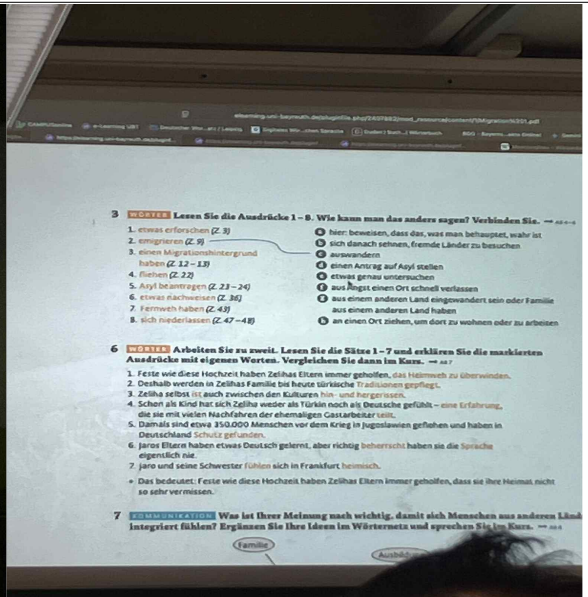


사진2. 독일어 수업 사진



사진3. 바이로이트 시내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사진4. 학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곡 순서 사진



사진5. 독일 식당에서의 슈니첼 음식 사진



사진6. 스페인 요리 빠에아 사진



사진7. 바이로이트에 있는 크로이츠슈타인바트 수영장 사진

사진8. 비어칸 기숙사 1인실 사진